

언론계에서 본 간호

한국일보사 정치부 차장 정 광 모

언론계에서 본 간호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해서 정치부를 중심으로 편집국언론인 150명에 대해 간호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제일 많은 수자가 「간호원은 백외의 천사」라는 막연한 개념을 말했고, 두번째로 많은 수자는 「간호는 봉사직」이라고 생각했고, 세번째로 많은 수자는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직업 즉 여성적인 직업」이라고 보았다. 네번째로 많은 수자는 「간호는 훌륭한 기능직」이라고 생각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간호가 여성의 천직이 아니냐고 대답했고 갖 대학을 졸업한 전습기자들은 옛날에 알고 있었던 즉 전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듣고 알았던 간호란 직업은 일종의 천한 직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양가집의 자녀는 간호원을 시키지 않았고 특별히 뜻이 있는 사람만이 간호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6·25후에 직업에 대한 개념이 아주 현저하게 달라진 직업은 간호원과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 이라고 기자들은 이야기 했다. 그 이유는 간호원은 몹시 천직이라고 들어 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과, 들게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물장수인데 기업관티를 성공적으로만 하면 그들은 물장수가 아니라 실업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사회변동에 따라 직업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본인이 취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간호원의 일글을 봐야만 그 표정에서 자기 병이 줄나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간호원이 식사를 갖다 쓸 때 그들이 자기의 생명과 관련되는 것 같아 무척 고맙게 생각하게 되었다. 본인은 이번 두 파업을 통해 비로서 간호원의 보수가 그렇게도 적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파업 동안에 매스 룸 계통에서 간호원을 몹시 악평했다. 간호원의 파업으로 인히 환자가 병원에 찾아 갔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사망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신문지상에서 이것은 간호원의 실책이라고 이야기 했으나 들이켜 생각해 보면 그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반드시 살 수 있었다는 보장은 어디 있으며 또 의사가 간호원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속수무책인 상태로 꼼짝 못하게 되는나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보면 간호원이 의사보다는 더 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고도 생각해 보았다. 또한 일국의 장관이 간호원파업에 대해 보복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몇일 지나지도 않아 그렇게 졸렬한 인사행정을 한데 대해 간호원의 두번째 파업은 간호원의 복직과 장관의 자리들 바꾸는 파업이었어야 더 효과적이 아니었겠느냐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간부에게 이런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산하단체의 회원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다. 저는 이번 두 파업을 통해 간호원들이 행동동일을 보여 준 것을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 있다. 1919년 3·1 운동 당시에도 세브란스병원에 종사하고 있던 수십명의 간호원들이 합심하여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그리하여 간호원의 Image는 반드시 어떤 봉사나 천사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투사, 지사, 애국이란 뜻이 결들인 것이라고 본다.

매스·룸 계통에서 간호원의 파업을 혹독하게 평한 이유는 본래 우리 나라 국민성이 남에게서 받

을 뿐만 알고 즐 즐은 모르기 때문이다. 간호원에게서도 친절과 봉사들 받기 만을 기대하고 그 친절과 봉사의 Resousce가 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고로 환자들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워왔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간호원들이 왜 그 친절을 잃어가며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 즉 오죽하면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호원의 파업을 혹평한 것이다.

간호직은 성직자 중의 성직자이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는 그런 간호직을 택한 사람들에게 Nightingale의 멍에를 씌우고 사람대접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번의 파업같은 것이 열번이던 백번이던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배우개선문제가 총무처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내년도 총선거에는 여성들의 보수 특히 간호원의 보수를 얼마만큼 더 올려줄 것이냐를 정부에 진의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으려고 여성단체에서 연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두 파업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였다. 그리고 간호원이 앞으로 행정부나 기타 여러기관을 통해 제대트의 보수를 받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무사적, 지사적, 애국자적 그리고 성직자적인 간호원이 되리다고 믿어진다.

사 회 학 적 으 로 본 간 호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교수 구 범 모

社會的으로 보아 看護의 機能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疾病治療와 관련된 看護 본래의 기능이고, 둘째는 疾病의 豫防이나 治療를 社會的으로 계몽하는 社會的 機能이라 지적할 수 있다. 첫째의 기능을 微視的으로는 疾病治療란 技術的 次元에서만 把握하여 그에 필요한 技能의 習得만을 강조할지 모르지만 그 見解는 지나치게 消極的인 理解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疾病治療 그 자체의 機能遂行을 위해서도 단순히 技術과 技能만으로는 부족하니 患者의 心理와 社會的 背景에 따른 相談者로서의 역할이 不可缺하게 重要하다는 것이다. 患者의 心理的 狀況을 分析하여 적절한 助言을 해준다든지 患者의 職業 및 社會的 背景에 따라 적절한 話題로서 對話에 臨하는 기능이 극히 重要하다는 것이다. 이 기능을 非醫學的인 기능이라 지탄할지 모르지만 그 기능이 疾病治療 자체를 위해서도 不可缺할 뿐 아니라 患者의 治療기간을 일종의 教養期間으로도 轉換할 수 있는 積極적 기능이라 생각된다.

둘째로 疾病의 豫防이나 治療를 社會的으로 계몽하는 기능도 豫防醫學의 重要性이 강조될수록 부각되는 看護의 영역이라 생각된다. 크게 보아 日常生活의 看護化를 통해 社會의 健康을 促進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病院 內에서의 白衣天使라는 소극적인 기능만을 自負할 것이 아니라 患者의 治療 뿐 아니라 健康管理을 위한 啓蒙의 역할을 社會에 대해 成功的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상 지적한 두가지 기능의 成功的인 수행이 看護領域을 技術學校수준에서 大學수준으로 昇格한 重要한 理由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看護기능이 그렇게 發展的으로 擴大되어야 看護의 實질이 病院 內에서의 從屬的인 存在로서의 白衣天使가 아닌 待望의 社會 속의 白衣天使로 승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